



축소를 위한 재정개혁이 가속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여야 대치국면과 여소야대 정국을 감안한다면, 깔데론 정부에서도 조세, 에너지, 노동부문의 구조개혁이 진전을 보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집권 첫 해인 2007년 깔데론 정부의 가장 큰 목표는 경제활성화를 통한 지역간, 계층간 양극화 해소가 될 것이며, 이를 위한 경기부양책을 적극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조세, 에너지, 노동부문의 구조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재정지출 확대와 같은 경기부양책은 결국 재정적자 누적과 이로 인한 물가 및 금융

불안을 야기할 위험이 있어, 실제 정책시행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정을 근거로 세계 주요 경제연구기관들은 멕시코의 2007년 경제성장률이 3%대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OECD는 '2006년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멕시코의 경제성장률이 2007년 3.6%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세계은행도 2006년 12월 발표한 '글로벌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멕시코의 2007년 경제성장률을 3.5%로 전망하였고, IMF는 멕시코의 경제성장률을 3.3%로 전망하였다. 기타 주요 투자은행들도 2007년 멕시코 경제성장률을 3.3~3.8%로 전망하고 있다.

V. 나이지리아 경제전망

1. 2007년 경제 전망

가. 성장세 지속

나이지리아는 2003년 이후 유가상승과 원유생산 증가, 농업부문의 호조 등이 맞물리면서 고도성장을 이어왔으나, 2006년에는 주 유전지역인 니제르 델타 인근의 정정 불안 요인이 고조되면서 경제성장률이 4.2%로 소폭 감소하였다. 2007년에도 니제르델타 지역의 정정불안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으나, 현재의 신규유전 발굴

및 생산시설 확충 속도로 볼 때 석유생산량 목표의 달성가능성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7년 초로 예정되어 있는 대선도 비교적 순조롭게 이루어질 전망으로 미루어 볼 때, 5%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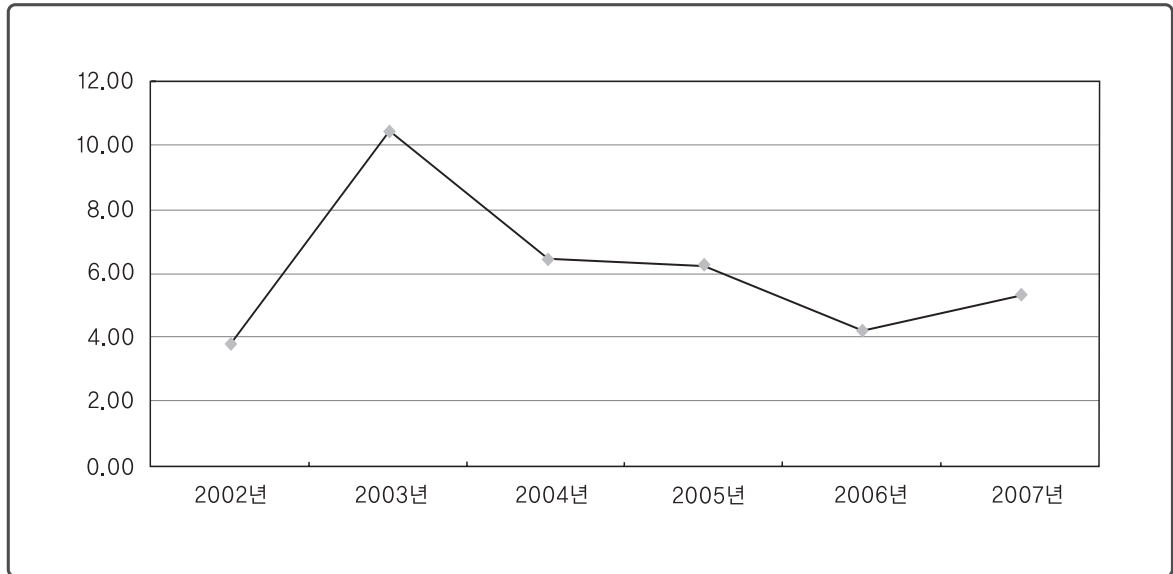
반면, 고유가로 인한 경제성장 및 막대한 재정수입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빈곤상황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아직까지 동국 경제가 석유산업 이외에는 제조업 등 다른 기반산업이 발달하지 못하여 고용창출 효과를 유발하지 못하고 있으며, 더불어



<그림 V-1>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자료: EIU

낮은 노동생산성 및 열악한 인프라 상황 등이 나이지리아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나. 10%대의 물가상승률 지속

나이지리아는 취약한 경제구조 및 정치적 불안과 함께 과도한 통화공급, 자국 통화의 급격한 평가절하, 국내 유류가격의 상승 등으로 1990년대 초에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50%를 넘는 등 극심한 물가불안에 시달려 왔으나, 2000년대 들어 중앙은행의 강력한 긴축정책 실시와 식료품 수급사정 호전으로 인해 물가상승률이 10%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07년도 농업생산 호조에 따른 식료품가격 안정이 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나, 2007년

초에 예정되어 있는 대선에 따른 정부지출 확대, 시중 유동성 증가 및 신규 도입될 금융제도의 불확실성 등으로 물가상승률은 전년과 비슷한 10%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 확대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가 석유수출 여건에 의해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나이지리아는 2000년대 들어 산유량 증가와 큰 폭의 국제유가 상승에 힘입어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가 크게 개선되어 왔다. 2007년에도 니제르 델타지역의 정정불안의 우려와 수입 및 서비스지출 증가가 예상되나, 지속적인 원유생산량 증가에 힘입어 경상수지 흑자는 GDP의 8.6%를 기록할 것으로



<표 V-1>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e	2007 ^f
경 상 수 지	-1,569	3,456	7,698	11,200	11,300
(경상수지/GDP)	(-2.7)	(4.4)	(8.4)	(9.7)	(8.6)
상 품 수 지	10,057	22,154	27,040	33,159	36,800
수 출	27,250	37,329	49,420	57,025	63,800
수 입	17,193	15,175	22,380	23,866	27,000

자료: EIU.

로 예상된다.

라. 재정수지는 안정적

정부의 재정지출이 확대되고 있으나,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석유수입 급증으로 최근 재정수지도 적자폭을 줄여왔으며, 2007 년에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비율은 전년도와 비슷한 1.4%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2. 2007년 대선 전망

2007 년도 나이지리아 경제의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는 오는 4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이다. 현재 나이지리아 북부 Katsina 주지사인 야라두아(Umaru Yar' Adua)가 이번 대선에서 승리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로는 꼽히고 있다. 먼저 야라두아 주지사는 여당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으며, 나이지리아 정국을 주도하는 엘리트집단은

오바산조(Obasanjo) 현 대통령이 남부 기독교임에도 불구하고 새 대통령으로 북부 이슬람 출신을 희망하고 있다는 점에서 야라두아의 당선가능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야라두아의 당선 가능성을 높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야라두아가 아직도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현 오바산조 대통령을 '민주주의 아버지'로 받들며 어떤 경쟁자들보다 오바산조 대통령의 절대적인 후원과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다. 1970년대부터 오바산조의 대리인으로 활동하며 특별한 관계를 구축한 야라두아가 작년 다수의 주지사들이 부정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 이를 무사히 피해갈 수 있었던 것도 우연이 아닌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유명도가 낮았던 야라두아가 막강한 여당의 후보로 선정된 것도 오바산조 대통령의 절대적인 지지에 힘입은 것이다.

많은 분석가들은 무엇보다도 야라두아 후보가 당선될 경우 오바산조 대통령의 개



혁명정책을 계승함으로써 작년 초 3선 개헌에 실패한 오바산조 대통령이 권좌에서 물러난 후에도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야라두아 후보가 신장과 관련된 건강악화 소문으로 집권 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점과 실질적인 군통수권 행사는 오바산조 대통령이 행사할 것이라는 추측이 무성한 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오바산조가 퇴임 후 부정부패 혐의에 휘말리지 않도록 바람막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이 야라두아 후보라는 분석도 오바산조 대통령의 야라두아에 대한 절대적 지지를 설명해주고 있다.

그러나 현 아부바카르(Atiku Abubakar) 부통령과 전직 군 고위관료였던 부하리(Muhammadu Buhari)가 치열하게 대선 후보로 경쟁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선 결과를 선불리 예단할 수는 없다. 또한, 지난 2003년 4월에 실시된 대선에서는

1999년에 이어 현 여당인 인민민주당(PDP) 정부가 대통령, 국회 상·하의원, 주지사 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으나, 이번 대선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 먼저 여당인 인민민주당이 압도적인 권력, 정치력과 자금을 바탕으로 여당 후보인 야라두아를 대선에서 당선시킬 가능성은 높으나, 야당이 지난 몇 년간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였음을 감안할 때 여당의 국회 및 주지사 선거의 압승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한해도 니제르 델타지역을 중심으로 석유시설 테러 빈발로 생산차질이 심했던 나이지리아가 오는 4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과 함께 지난 수년간 계속되어온 종족, 종교간 분쟁의 골이 깊어진 정치적 혼란 가운데 유사 분쟁 발생 우려 등 대선을 앞두고 정국의 긴장 및 불확실성이 지속될 전망이다.

VI. 2007년도 필리핀 경제전망

1. 국내경제

가. 경제 동향

아로요 대통령에 대한 대선부정 의혹 및 가족들의 뇌물수수 조사 등 불안정한 정국

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 필리핀 경제는 양호한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된다. 2005년에는 가뭄에 따른 농산물 작황 악화와 고유가 등의 영향으로 5.0% 성장에 머물렀으나, 2006년에는 전자제품 수요 증가에 따른 수출활성화와 농산물 작황